

16장 아래로부터의 삶정치와 코뮌리즘 II

(1교시)

※ 학습목표

왜 맑스는 사회주의로부터 코뮌리즘이 연속적인 미래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을까?
이는 근대와 탈근대의 사회·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코뮌리즘의 성격을 추론해 본다.

▲ 근대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노동

근대의 조건속에서의 노동 유형은 산업노동임.

→ 산업노동은 노동과정 외부에 독립적 생산물을 낳음. 산업노동의 발전은 인력의 사용에서 출발하지만, 기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편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 잉여가치가 증가함. 이는 고정자본의 증가를 의미함.

삶과 노동이 구분되는 영역에 점점 더 많은 고정자본이 쌓임.

결국 생산수단이 생산자 외부에 독립적으로 증대됨.

케인즈주의

→ 생산수단의 축적이 국가를 통해 확장해 가는 방식. 생산수단의 독립과 그 규모의 증대는 산업노동의 내적 발전 경향 속에 깃들여 있다.

▲ 탈근대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노동

비물질노동의 생산물

비물질적인 성격을 가짐. 또한 노동과정 외부에 독립적 생산물을 낳지 않는다. 서비스 노동의 광범한 증대를 통해서 비물질노동의 특성과 확장을 읽을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서비스 노동에 종사함.

탈근대 사회

국가 권력에 변화가 일어남. 국가는 더 이상 불가침의 영역이 아님. 권력의 분산과 미시화가 일어나고 있음. 이는 생산과정의 변화와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권력은 사회 그 자체를 초월적인 위치에서 관리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 짐.

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론

→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문화 바깥의 국가만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도 독특한 권력의 지형이 나타난다고 주장.

한 정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미시적 권력에 의해 포위당하는 현실

→ 이런 배경은 새로운 삶정치와 커뮤니티즘을 촉발시킨다.

또한 이를 위해 다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다중이 지니는 함의

→ 다중은 제국 속에서 제국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제국을 넘어서는 세계를 건설할 새로운 주체성이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반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다중이라는 개념은 선진자본주의나 서구에서는 타당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그 중의 하나

→ 다중은 시민이나 노동자 개념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아직도 우리는 시민을 초계급적 집합체로 상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장에 시선이 묶인 채 시민을 뺄뻔부르주아지로 격화하면서 산업 노동자의 동태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재생산된다.

‘노동의 전 사회적 산포와 사회적 노동의 형성’, ‘여성, 생태, 주민, 빈민 문제 등을 통합한 사회적 노동 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해 총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계급재구성적 현상이 이처럼 분리된 두 흐름으로 고착됨으로써 다중의 실상을 파악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짐

그러나 빠르게 구축된 사이버스페이스와 네트워크 운동의 발전은 다중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선진 자본주의적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면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다중운동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2교시)

▲ 삶정치의 요구들

① 전 지구적 이동권

자본의 이동은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노동의 이동이 제약되는 현실**의 타파가 이루어져야 함. **이주 노동자의 자유 보장이 요구되는 시대임**. 현재 이민자들은 9.11 테러 이후 더욱 극심하게 압제받고 있는 상황임.

외국 노동자들을 요구했던 유럽은 이제 이민을 제한하고 있음. 실제로 **이민제한**은 이민의 완전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통해 나타난다**. 불균등한 노동조건이 팽배해지고 있음.

② 보장소득

보장소득의 맹아적인 형태는 케인즈주의 내에서의 복지 시스템과 유사

여기서의 **보장소득은 노동과 연결되지 않음**. 노동주의적 관점에 대한 자본주의의 자기위반으로 볼 수 있음. 케인즈주의 하에서의 복지소득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죽음을 모면케 함으로서의 질서유지의 도구로 사용됨.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빈민구호금의 성격**이 강함.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원리로서 현실화 시킨 것.

하지만 현실적인 실업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그들의 노력과 정보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소득은 빈민구호금의 성격을 넘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③ 일반지성과 공동생산소득에의 접근권

오늘날은 생산수단이 **몸들과 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되어 있다. 오늘날 **공장의 기계류들도 네트워크** 되어 있음. 이제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시기임**을 보여줌. **지식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함**.

▲ 삶정치의 요구들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오늘날 정당과 같은 대의적 조직을 통한 운동에는 한계가 있음. 이제 생산의 변화된 지형을 인식해야 함. 다질적인 힘들로 분산되어 있는 다중들을 동질적인 정치적 강령에 종속시켜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다중들의 힘을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힘에 연결시켜야 함. 이른바 **네트워크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도 이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네트워크화 된 다중들의 정치적 요구를 삶 정치적 요구로서 배치해야 함.

생산 차원에서의 공통적인 것을 현실적 삶의 구조로 드러내야 함.